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30 호

2020 년 7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Target Gender Equality(TGE) Kick-off Meeting 결과 공유 (6/26)
2.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 발족 (6/24)

■ GCNK Project

1. [Gender Equality Korea] TGE COVID-19 퀴즈: 글로벌 분석
2. [Business Integrity Society] 코로나와 반부패: UNGC COVID-19 임팩트 브리프

■ 리더스 서밋 2020(Leaders Summit 2020) 특집

1. 위기에서 기회로, 2020 온라인 리더스 서밋 개최 결과

■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사람 중심의 세상을 위해_리세 킹고 UNGC 사무총장 마지막 기고
2. 유엔글로벌콤팩트 20 주년 온라인 리더스 서밋 개최
3. 유엔글로벌콤팩트, 제 1 회 Young SDG 혁신가 프로그램 성료

4. [발간물]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 기념 이행보고서: 유엔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 기업 연대

■ SDGs 소식

1. [COVID-19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LG 전자
2. [SDGs 솔루션] 산업용 공기 압축 기술을 재디자인하다
3. [SDG 미디어 존]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CEO들의 생각
 - 피터 레이시(Peter Lacy) Accenture 전문이사 외 1인

■ UNGC 회원 뉴스

1. 법무법인 지평 '인권경영팀'... 인권침해 예방... 기업 경영리스크 감소 주력
2. 신한은행, 은행장 선임에 의견 제시... "책임경영 강화"
3. 한국중부발전, "발전량 25% 신재생에너지로"... 보령시엔 태양광나무도 설치

■ CSR 뉴스

1. 공정거래는 사회적책임 첫 걸음... 대중소기업 '원원'
2. 포스트 코로나 '착한기업'에 돈 몰린다... ESG 시장 급성장
3. 문대통령 22일 반부패협의회... 오픈마켓 '갑질' 대책 점검
4. "코로나 19, 여성 임시직에 가장 큰 충격"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Target Gender Equality(TGE) Kick-off Meeting 결과 공유 (6/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26 일(금)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TGE)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TGE 참여 기업 실무진과 함께 각 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한 TGE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인사말_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글로벌 동향 젠더투자"_여지원 연구원 ▲"여성 리더십 향상 정책 공유"_공유진 연구원 ▲기업별 성평등 및 여성 리더십 정책 발표 및 의견 공유 ▲2020 TGE 운영방안/WEPs Tool 사용방법 및 과제 안내_이수란 과장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TGE는 올해 UNGC 한국협회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특히 중점 과제 중 하나"라며, "각오프에 참여한 기업은 '전세계적인 이슈 해결에 선두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성평등을 이루는데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첫 발표 세션에서 여지원 UNGC 한국협회 연구원은 여성 리더십이 재무성과 강화, 소비자에 대한 통찰력 향상, 기업 거버넌스 개선, 더 나은 의사결정 등 다방면으로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지원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볼 때, ESG 투자 규모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젠더 관련 투자가 크게 성장했다"고 설명하며 기업 여성 리더십 향상 노력 및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발표 세션에서 공유진 UNGC 한국협회 연구원은 국내 여성임원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조직, 개인, 정책차원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남성 중심 조직문화, 능력 보다 관계 중심의 인사관리방식, 그리고 여성임원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 여성 대상 멘토링, 경력 개발 및 트레이닝 등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내부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설정 및 공식적인 여성위원회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기업별 정책 발표에서는 각 참여기업이 자사의 사내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LG 화학은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사내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권역별 여성 Community 를 진행해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KPI(핵심성과지표) 수립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으며 BGF, 슬로워크와 SK Telecom 은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또는 유연근무제와 같은 복지제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CJ 제일제당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CJ 리턴십 프로그램, 롯데그룹은 사내 다양성 제고를 위한 LOTTE Diversity Eco-System 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각 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사내 문화에 대해 공유하고, 각 기업 간 동료학습을 통해 자사에 부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등을 나누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은 TGE 운영 방안과 WEPs Tool 사용 방법,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TGE 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GE 1 차 워크숍이 8 월 초에 진행될 계획이며, TGE 참여기업들은 워크숍 참여 전까지 WEPs Tool 을 통해 자사의 성평등 정책을 자가 진단하고 향후 여성리더십 목표 수립을 위한 강점과 약점, 기회 등을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한편 2020 년 TGE 프로그램에는 총 9 개 기업이 참여하며, ▲(주)롯데 ▲BGF ▲CJ 제일제당 ▲LG 화학 ▲SK 텔레콤 ▲슬로워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등 7 곳이 이번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2.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 발족 (6/24)



6 월 24 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기후행동 컨퍼런스 2020 에서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공동의 뜻을 위한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이하 CoRE 이니셔티브)'가 런칭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함께하는 본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 역량강화와 재생에너지 조달향상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선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전력소비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가입한 기업이 241 곳(기준 2020 년 6 월 23 일)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역량 부족, 관련 정부 정책의 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발족된 CoRE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경영진 인식 제고, △기업 실무진 세미나 및 스터디 그룹 운영,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실무진 대상 가이드라인을 발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도입시기 전후에는 재생에너지 조달향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원칙 발간, △ 기업,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간 소통 채널 마련,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 관련 국회 연계 포럼을 주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기업과의 수시 미팅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이행방안 설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 표 참조)

〈CoRE 이니셔티브 주요 활동〉

목적	활동 내용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기업 경영진 인식 제고
	기업 실무진 세미나 및 스터디 그룹 운영
	기업간 활동 내용 공유 채널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
재생에너지 조달향상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재생에너지 조달 원칙 발간
	기업,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간 소통 채널 마련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 관련 국회와 연계하여 포럼을 주최
기업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지원	목표 설정 지원을 위한 개별 미팅 진행

본 이니셔티브 동참을 원하시는 회원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 02-749-214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GCNK Project

1. [Gender Equality Korea] TGE COVID-19 퀴즈: 글로벌 결과 분석(6/24 기준)

양성 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정책 및 관행도 그에 맞춰 이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시민사회, 유엔기관 및
기타 파트너와의 협력]

92%

아시아: 89% / 한국: 89%

설문 대상 기업 중 92%(아시아: 89%, 한국: 89%)의 임원들은 양성 평등의 추진을 위해 정부, 시민 사회, UN 기관 및 기타 협력사들과 함께 SDG의 5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함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89%

아시아: 64% / 한국: 77%

설문 대상 기업의 89%(아시아: 64%, 한국: 77%)는 기업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여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일하는 부모 및 보호자인 직원
지원 정책 및 관행 진단/조정]

79%

아시아: 90% / 한국: 89%

설문 대상 기업의 79%(아시아: 90%, 한국: 89%)는 맞벌이 부부 및 아동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기업의 정책 및 관행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고 응답함

77% (아시아: 74%, 한국: 89%)는 여성 근무자들의 건강 및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이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기업들의 절반 정도만이 자선사업, 정보 수집,
가치 체인에 젠더 관련 가치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한 여성과 소녀 지원]

64%

아시아: 56% / 한국: 88%

설문 대상 기업의 64% (아시아: 56%, 한국: 88%)는 자사의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여성 및 소녀를 지원하는 자선사업/기부 활동에 지원했다고 응답함

[성별 데이터 수집]

50%

아시아: 24% / 한국: 50%

설문 대상 기업의 50%(아시아: 24%, 한국: 50%)만이 성별로 구분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가치 사슬 내
여성 근로자 지원]

45%

아시아: 37% / 한국: 56%

설문 대상이었던 기업의 45%(아시아: 37%, 한국: 56%)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여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완화 조치를 수행함

마케팅, 여성 소유의 비즈니스, 그리고 가정 폭력 대응에 있어
양성 평등과 관련한 가치관이 아직 충분히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성평등 촉진 마케팅]

43%

아시아: 33% / 한국: 56%

설문 대상기업의 43%(아시아: 33%, 한국: 56%)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양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사의 마케팅 및 광고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함

[여성 소유 기업 지원]

31%

아시아: 28% / 한국: 66%

설문 대상 기업의 31%(아시아: 28%, 한국: 66%)는 여성 소유 비즈니스에 코로나19 사태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복을 도왔다고 응답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폭력 대응]

23%

아시아: 5% / 한국: 44%

설문 대상 기업의 23%(아시아: 5%, 한국: 44%)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가정 폭력 수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함

GEK에서 보기

2. [Business Integrity Society] 코로나와 반부패: UNGC COVID-19 임팩트 브리프

범지구적 팬데믹인 COVID-19 로 인해 발생한 생산 및 노동 관련 문제들을 기반으로 곳곳에서 기업 활동의 지형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생산 중단과 그로 인한 재무적 부담 증가 등의 일차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 활동에 대한 COVID-19 의 위협은 준법-감시, HR 등과 같은 기업의 다양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 준법-감시 기능의 약화는 곧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예방 조치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세계 최대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는 기업이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 조치를 담은 ‘임팩트 브리프’와 UNGC 핵심 가치인 10 대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 대응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기업 활동에 야기되는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다음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발표한 주제별 COVID-19 임팩트 브리프 중 반부패에 관한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요약

COVID-19 의 여파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기업 운영과 준법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조직 내부와 공급망에 걸쳐 부패 위험(불법 금융의 흐름, 조직적 범죄, 이해 상충, 가격 인상으로 인한 폭리, 재무 보고 위조, 위조품 및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한 뇌물 수수 등)에 놓여 있다.

주요 통계

- 2019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조사(UN Global Compact Annual Survey)에 참여한 기업 중 89%가 기업 내부에 반부패 관련 정책이 있다고 응답
-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5%가 구체적인 반부패 기업 강령(code)이 있다고 응답
-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조사에 참여한 51%의 기업이 무관용 정책을 운용 중이라고 응답
-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구인 Open Contract Partnership 은 정부 지출의 1/3 이 기업과의 계약에 쓰이는 것으로 추산
-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 세계 약 3%의 기업이 정부 계약 확보를 위해 선물을 주는 것으로 추산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OVID-19 임팩트 브리프에서는 부패와 관련하여 기업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행동 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문제

- 기업은 재무 및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적절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음
- 의료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 조달 등에서 사기 및 부패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부패 위험을 적절하게 해결하면서 운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에 있음
- 준법 감시인, 감사 및 조사관은 감독을 유지하고 감사 및 조사를 원격으로 수행할 방법을 터득해야 함
- 기업이 적절한 제 3 자 주의 의무 없이 신속하게 잠재적 계약을 확보해야만 할 수도 있음
- 긴급경제지원 관련 제도의 감독 및 책임이 불충분할 수 있음

조치

- COVID-19 와 관련된 사기 및 부패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부패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 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관행을 강화하고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가상 교육과정을 실시할 것을 고려한다.
- 제 3 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강력한 감독 메커니즘을 지속한다.
- 정책을 일관되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직원, 투자자, 공급 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윤리 및 진실성 문화를 장려한다.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포함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정책 및 보호를 도입하거나 강화한다.
-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금융 흐름과 관련된 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시한다.
- 관련 정책,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고 핵심 가치와 윤리적 관행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유통 및 판매(또는 기증)한다.
- COVID-19 로 인한 기업 및 직원 성과의 잠재적인 변화에 따른 재무 목표 및 인센티브 구조를 재평가하여 사기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압력과 동기를 경감한다.
- 반부패 공동노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경쟁과 성공 기회를 보장하고 지식과 재무, 그리고 기술 자원을 강화하여 더 큰 영향력을 만든다.

BIS 에서 보기

리더스 서밋 2020(Leaders Summit 2020)

위기에서 기회로,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개최 결과



지난 6 월 15-16 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창립 20 주년 기념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3,790 명이 참석하여 UNGC 창립 이래 가장 포괄적이며 규모가 큰 행사로 기록되었습니다. 2020 년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이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시기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출범 20 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기존 10 대 원칙 관련 4 대 분야(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뿐만 아니라 지난 20 년간 UNGC 와 회원사들의 지속가능성이 발전해온 행적과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경영환경 및 회복탄력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세션을 다수 마련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업의 연대’에 대한 메시지로 서밋의 포문을 열다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의 개최사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티자니 무하마드-반데(Tijjani Muhammad-Bande) 유엔 총회 의장 ▲살러워르크 저우데(Sahle-Work Zewde) 에티오피아 대통령 ▲마크 카니(Mark Carney) 유엔 기후행동 및 재정 특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며 기후 변화와 인류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의 목소리와 선례가 각국 정상들이 지속가능목표를 우선시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화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닐 것”이라고 단언하며 유엔과 많은 기업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빈곤, 생물다양성, 사회 불평등, 보건 이슈와 같은 경제 위기 및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UNGC 회원사들이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티자니 무하마드-반데 유엔 총회 의장은 “우리가 이 위기로부터 회복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맞아 우리는 더 나은, 더 포괄적인,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형제애와 연대, 신뢰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업은 지속가능목표와 유엔의 10 대 원칙을 경영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취약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건강하고 번영할 수 있을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의 논의의 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것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2020 리더스 서밋을 여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살러워르크 저우데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며 “더 나은, 더 강력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모두가 함께 추구할 때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회사를 전한 마크 카니 유엔 기후행동 및 재정 특사는 “팬데믹 전에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그것을 강화해야만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후 리스크가 투자 리스크와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과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은 순 제로(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다자 간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마크 카니 특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리더들이 지속가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향타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난 20 년간의 행적을 되돌아보다



개회사 이후 이어진 “지난 20 년간의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지속가능경영의 성장” 발표에서는 레미 에릭센(Remi Eriksen) DNV GL CEO 가 지난 20 년간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 및 현황을 전했습니다. DNV GL 과 UNGC 는 창립 20 주년 기념 이행 보고서(Progress Report)를 발간했습니다. 에릭센은 창립 20 주년 기념 진전 보고서에 담긴 UNGC 기업 대상 인터뷰를 인용하며

UNGC 참여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며, 기업들이 각자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SDGs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그는 기업이 SDG를 이행하는데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 10대 원칙을 기업의 핵심전략에 내재화한 기업은 전체의 9% 수준이라고 말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UNGC 참여 기업의 84%가 SDGs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들 중 46%만이 SDGs를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포함하고 있으며, 39%만이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레미 에릭센은 이어 더 깊이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약속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과소평가되는 반면,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영향에 대해 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경제 체제가 같은 방향을 향해 진전해 나가고는 있으나 상호 간의 협력은 아직 부족하다며, 기업이 속한 부문과 업종이 무엇이든지 야심 찬 목표를 세워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통찰력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의 더 나은 세상과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하다

이번 온라인 리더스 서밋의 코로나 19 위기 대응과 회복탄력성에 대해 논한 세션들은 공통적으로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기업의 역할,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연대, 기업과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시각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위급 특별 세션에서는 UNGC 슬로건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대(Uniting Business for Better World)”를 주제로 라스무스 프렌(Rasmus Prehn) 덴마크 개발협력부 장관, 안나 할베리(Anna Hallberg) 스웨덴 통상장관 등 이탈리아, 몰타, 노르웨이, 폴란드, 아프리카인 유니언 등 7개국에서 장관급 연사들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 연사는 코로나 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평등 및 평등한 기회에 초점을 맞춰야만 더욱 강력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커티카(Michal Kurtyka) 폴란드 국무장관은 “모든 나라가 안전할 때까지 완전히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말하며 서로가 연결되어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금,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UNGC 사무총장의 취임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다



6월 16일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의 마지막을 장식한 폐회 세션에는 앵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참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글로벌 위기”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폐회사를 마쳤습니다.

리더스 서밋 폐회세션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 2020년 6월 16일자로 약 4년 간의 임기를 마친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에서 차기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로의 사무총장직 이임식이 이어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제3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공동의 행동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잠보 사무총장은 “UNGC 회원사들은 2030년 의제를 향한 발전을 가속화하는 혁신, 기술,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민간 부문의 솔루션과 자원을 활용하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취임 소감과 의지를 전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에서 논의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해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호에는 ‘COVID-19 과 지속가능성’ 해법에 대한 이번 서밋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사람 중심의 세상을 위해_리세 킹고 UNGC 사무총장 마지막 기고



지난 16 일, 5 년 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연대해 온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대한 노력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 활동가들에게 아래 글을 남겼습니다.

75 년 전, 참혹했던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유엔은 전쟁의 광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구해내고 새로운 세상을 재건해야 한다는 미션 아래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이 보다 평화롭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과 기본권,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0 년,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 시장에도 인간의 가치를 부여해야 함을 강조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창설할 당시 전제했던 조건들이기도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출범하며 코피 아난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이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단기 이익에 치중해 계산적으로 작동하는 시장 vs. 사람을 고려한 인적 요소를 갖춘 글로벌 시장>, <인류의 4 분의 1 을 굶주림과 비참함 속에 내버려두는 세상 vs. 모두가 한 번쯤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기적 자유의 횡행 속에 패자는 잊혀지는 세상 vs. 지도층이 그들의 책임을 자각하고 약자를 포용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펼치는 세상> 이러한 두 세상 사이에서 말입니다. 만약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세계 경제는 보호주의, 포퓰리즘, 국수주의, 민족 우월주의 등 수많은 이기주의의 앞에 무너질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유엔 창설 75 주년과 유엔글로벌콤팩트 창설 20 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코피 아난이 제시했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실패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가 제시했던 방향성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우리가 올바른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가 이룩해온 것들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더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이 오히려 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빠른 회복을 방해하는 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사회 불평등은 이미 전 세계 인구 70%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2008 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관측이 있긴 하나, 일견 성장세로 보이는 현 상황과 노동생산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0 억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 안전망 밖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이끌어낸 수치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떠받치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전 세계 비공식 부문 노동력의 절반에 가까운 약 16 억 명의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 여년 간 이어온 눈부신 진보와 발전은 온데간데없이, 4 천 900 만 명의 삶은 다시 과거의 극심한 빈곤 상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직도 필수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조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최근 미국 미니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 내 아직도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불평등과 인종차별 문제를 재조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리더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진지한 성찰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누구도 이 논의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물론 불평등과 인종차별은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에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형태의 자본주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19 로 야기된 현재의 보건 및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의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 분의 2 에 가까운 사람들은 교육 및 경제 수준이 낮은 이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더 많은 고통과 질병의 위험, 그리고 희생을 부담하게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DG 에 대한 야심을 한 차원 높일 때가 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출범하면서, 코피 아난(Kofi Annan)은 기업의 적극적인 헌신과 지원이 없다면 보편적 가치는 듣기 좋은 말,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기념하고 연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보편적 가치는 문서에서만 남아 일반인의 삶에는 극히 제한적인 영향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는 명백한 부당성을 외면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입증했습니다. 인간과 지구, 그리고 모두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까지 4,000 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제 우리는 모두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젠다 2030 은 ‘일상적인 비즈니스(business-as-usual)’를 통한 점진적인 성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을 등대 삼고, 10 대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들은 ‘뉴 노멀’로 향하는 급진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비즈니스 결정에서 인간의 동등한 가치와 권리, 자유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안정적인 시장의 핵심이 사회적 평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어려움 외에도, 많은 다른 위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부터 생물다양성 손실, 식물 자원의 침식까지 다양한 문제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리더들은 지금 이 순간을 통해 사회운동가가 되어 세상에서 그들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기업 목적과 가치, 거버넌스 및 전략, 계획 및 성과 관리 전반에 걸쳐 “모두를 위한 인간, 지구 및 번영”을 심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비즈니스 리더들은 행동의 10 년동안 선도적으로 나아가 SDGs에 대한 야심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가가 됩시다

이제 CEO, 경영진, 이사회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조직 내에서,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 외에서도 사회운동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의 5년이 지나 떠날 준비를 하는 지금, 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발자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리더십은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소리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코피 아난은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어디로 향하고 싶고 왜 그곳에 가고 싶은 지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의 10년으로 접어드는 지금,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업의 연대라는 우리의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원문 보기

2.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 온라인 리더스 서밋 개최



20,000 명 이상의 지속가능성 리더들,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 온라인 리더스 서밋에 참석하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 보츠와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의 대통령, 23 명의 글로벌 CEO, 그리고 12 명이 넘는 유엔 대표들이 민간기업의 전례없이 상호 연결된 글로벌 위기에 놓인 건강, 불평등, 기후 변화에 대해 논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100 개가 넘는 글로벌, 지역 및 로컬 세션을 포함하여 26 시간 내내 진행된 온라인 서밋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목적 지향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인 유엔 주도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180 개가 넘는 국가에서 20,000 명이 넘는 기업 및 지속가능성 리더들이 각자의 현지 시간과 언어에 맞춰서 참석했습니다.

“더 나은 회복, 더 강한 회복, 함께 회복(Recover Better, Recover Stronger, Recover Together)”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행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20 주년을 축하하며 비즈니스,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유엔 리더들이 협동과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앰비션을 재설정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 연대와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여러 국가 내 다양한 크기와 산업의 기업들을 보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통 목표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을 핵심 전략 및 운영 방식에 통합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기조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리더스 서밋에서는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신임 사무총장이 리세 킹고(Lise Kingo)로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직을 이임받으며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기념했습니다.

지난 5 년간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되돌아보며, 리세 킹고는 “10 대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공급망을 비롯한 기업의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신임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로 인한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 중에서도 기후 변화와 불평등의 악화가 기업과 인류의 기반을 흔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아태 지역 본 회의에서 ‘SDGs 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o Accelerate the SDGs)’ 행동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100 개가 넘는 SDGs 세부 목표 및 인프라와 연관되어 있어 전세계 인구의 60%, 전세계 무역의 40%, 그리고 전세계 GDP의 30%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SDGs의 발전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활용시, 전 세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동 플랫폼 런칭에 대해 렌 홍빈(Ren Hongbin) SASAC 부의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멤버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오늘 런칭한 행동 플랫폼이 SDGs를 가속화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를 확대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메커니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DNV GL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 기념 이행보고서: 유엔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 기업 연대\(UN Global Compact 20th-Anniversary Progress Report: Uniting Business in the Decade of Action\)](#)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유엔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17개의 SDGs에 기여하기 위해 경영전략 및 운영에 10대 원칙을 포함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와의 인터뷰가 뒷받침하는 연간 설문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이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젠다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더 야심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회원사의 84%가 SDGs를 관련 활동을 하고있는 반면, 46%가 SDGs를 핵심 경영 전략에 내재하고 있으며, 39%의 기업이 충분히 야심찬 과학 기반의 또는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러셀 레이놀즈 어소시에이츠(Russel Reynolds Associates)와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행동의 10년을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the Decade of Action\)](#)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속가능성을 전략, 운영 및 이해관계자 참여 전반에 걸쳐 통합하는 비즈니스 리더로부터 배울 수 있는 내용과 이것이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 리더 선정 방법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시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전 세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기업과 기업 생태계 내 최우선 순위로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또한 [행동의 10년을 위한 경영 벤치마크 소개서\(Introducing Business Benchmarks for the Decade of Action\)](#)를 발간하여 기업 활동이 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기업 우수 사례 벤치마크를 제공합니다. 이 소개서는 Accenture 및 SAP와의 파트너십인 SDG 앰비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세계 주요 기업이 야심찬 목표를 수용하고 SDG를 핵심 비즈니스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정보 기술 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DGs에 대한 보다 야심찬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연설자들은 비즈니스 리더십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매니 치리코(Manny Chirico) PVH Corp. 회장 및 CEO는 비즈니스 리더십에서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Target Gender Equality(TGE)에 대한 후원을 발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다른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 마크 카니(Mark Carney) 유엔 기후행동과 금융 특별대사
- 엘 고어(Al Gore) 기후 프로젝트 설립자 및 회장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및 현 디 엘더스(The Elders) 사무부총장
- 미셸 바첼렛(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
- 알리시아 바르세나(Alicia Bárcena)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 위원장
-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로베르토 마르케스(Roberto Marques) 나투라앤코 회장
- 산드라 우 연수(Sandra Wu Wen-Hsiu) 고쿠사이 코기오 회장 및 CEO
- 줄리 스위트(Julie Sweet) 엑센츄어 CEO
- 헬레나 헬메르손(Helena Helmersson) H&M 그룹 CEO
- 일리안 미호브(Ilian Mihov) 인시아드(INSEAD) 학장
- 피오나 레이놀즈(Fiona Reynolds), PRI CEO 등

-
-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 영상](#) 시청하기
 - 행사에서 새롭게 런칭된 자료 열람하기
 - ✓ [유엔글로벌콤팩트 20주년 기념 이행보고서: 유엔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 기업 연대](#)
 - ✓ [행동의 10년을 위한 리더십](#): 유엔 글로벌 콤팩트- 러셀 레이놀즈 어소시에츠 지속가능한 경영 리더의 특성에 관한 연구
 - ✓ [행동의 10년을 위한 경영 벤치마크 소개, SDG 앰비션 이니셔티브의 일환](#)
 -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 2020](#)에 대해 더 알아보기

[원문 보기](#)

3. 유엔글로벌콤팩트, 제 1 회 Young SDG 혁신가 프로그램 성료



*130 개 사업체가 참여한 젊은 기업 전문가를 위한 혁신 가속화 프로그램
80 개 이상의 지속가능한 사업 전략 아이디어 구축*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구하는 Young SDG 혁신가 프로그램의 1 회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들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Young SDG 혁신가 프로그램은 10 개월 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청년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액션 러닝 워크숍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혁신에 대해 비즈니스 리더들로부터 지식을 학습하고 적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사업 모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0 여개국 130 개사의 480 명 이상 참가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의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10 개월에 걸쳐 80 개가 넘는 SDG 비즈니스 솔루션이 순환경제, 보편적 공중보건, 토지 재조림과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이니셔티브에 적용되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본 프로그램의 가치를 돌아보며 “사회, 환경,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코로나의 전지구적 유행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의제에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돌파구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각과 혁신을 위해 다음 세대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유형의 원동력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의 성료를 기념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파트너 단체와 함께 6 월 8 일 Young SDG 혁신가의 수료식을 기념하는 글로벌 온라인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초기부터 재정적으로 지원해 온 덴마크의 투보그 재단(Tuborg Foundation)도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앤-마리 스코브(Anne-Marie Skov) 투보그 재단 이사장은 “Young SDG 혁신가 프로그램은 더 나은 미래, 더 탄력적인 미래를 젊은이들이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에 종사하는 전 세계의 청년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역량 강화,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재들을 찾아낸 모습이 보기 좋았고, 변화의 주체들인 청년들의 참여와 추진력을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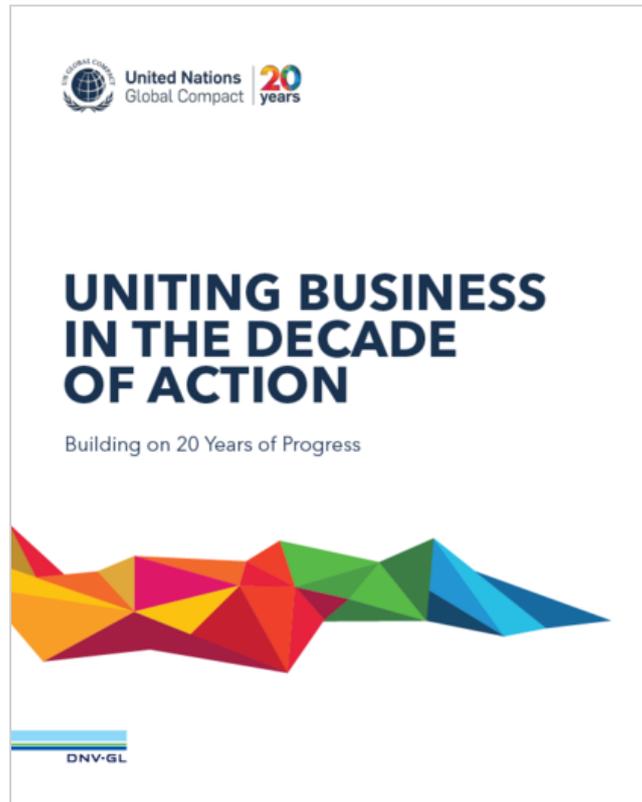
10 개국에서 온 청년 비즈니스 전문가 및 참여자들은 6 월 15 일부터 이틀 동안 50 개 이상의 토론 세션과 패널을 선보인 유엔글로벌콤팩트 온라인 리더스 서밋에서 자신들의 통찰력과 사업 솔루션, 그리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Young SDG 혁신가 프로그램은 돌아오는 11 월 두 번째 라운드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 10 개국에서 캐나다, 인도, 케냐, 나이지리아, 노르웨이와 필리핀 등 6 개국이 추가되어, 총 16 개국에서 진행됩니다.

Young SDG 혁신가 프로그램은 전략적인 경영, 혁신, 기업가정신 및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하는 젊은 사업가들과 신생 기업, 그리고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청년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3 개년 협력사업으로, 2019 년부터 투보그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4. [발간물] 유엔글로벌콤팩트 20 주년 기념 이행보고서: 유엔 행동의 10 년 (Decade of Action) 기업 연대



20 주년 기념 리더스 서밋을 맞이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DNV GL 과 함께 회원사들의 20 년간의 지속가능성 변화를 파악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20 주년 기념 이행보고서: 유엔 행동의 10 년\(Decade of Action\) 기업 연대’](#)는 회원사의 연간 설문 조사 데이터 및 전세계 회원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기업이 10 대 원칙을 운영 방식과 연계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20 주년 기념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 대상 기업의 39%만이 2030 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자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 분의 1 이하의 기업이 자신이 속한 산업이 SDGs 달성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회원사의 84%가 SDGs를 관련 활동을 하고있는 반면, 46%가 SDGs를 핵심 경영 전략에 내재하고 있으며, 37%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목표 각각의 성과는 불균등합니다. 많은 기업이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목표 9: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목표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13: 환경보호 활동 △목표 3: 건강하고 질 좋은 삶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평등 해소, 양성평등, 평화와 정의, 정의, 강력한 제도와 같은 사회 중심 목표의 진전에는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SDG RANKING				
RANK (1-17)	Prioritizing the SDGs (%)	Target setting (%)	Recognizing impact on the SDGs (%)	Key highlights
 #1	65%	61%	Positive: 91 No impact: 5 Negative: 1 Don't know: 3	90 per cent of companies prioritizing Goal 8 mandate equal pay for equal work, but only 63 per cent extend workforce policies to contractors and the broader supply chain
 #2	55%	59%	Positive: 85 No impact: 7 Negative: 2 Don't know: 6	Only 61 per cent of the companies prioritizing Goal 3 provide healthcare for all employees
 #3	54%	78%	Positive: 72 No impact: 14 Negative: 7 Don't know: 7	One-third of companies prioritizing Goal 13 have committed to setting a 1.5-degree Science Based Target (34%), and 40 per cent have committed to or set a net-zero target by 2050 or earlier
 #4	54%	69%	Positive: 78 No impact: 13 Negative: 3 Don't know: 6	Of the companies that are prioritizing Goal 12, 70 per cent are deploying circular models for consumption and 70 per cent are reducing or reusing all waste in production and operations, including food waste
 #5	53%	69%	Positive: 83 No impact: 10 Negative: 2 Don't know: 5	Only 69 per cent of those that prioritize this SDG have set targets, and only 43 per cent require a minimum of 30 per cent of women on their board

그 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61%의 기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48%).
- ✓ 57%의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자사 운영상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지만, 이를 공급업체(19%), 원자재(10%), 제품 사용(10%)으로 확장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30년 목표를 이루기까지 4,000 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점진적인 개선과 ‘일상적인 비즈니스(business-as-usual)’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유엔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 이내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정책 공약을 실제 성과 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CEO 들이 목소리를 높여 모든 기업이 10대

원칙을 통합하고 우리 사회와 지구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포부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라고 보고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레미 에릭센(Remi Eriksen) DNV GL CEO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격변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기후 위협에 대한 행동 부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요구부터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코로나 19 팬데믹,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지 열망해야 할 이상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에 따라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성 달성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산업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문 보기](#)

[보고서 바로가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LG 전자



UNGC 가입: 2010. 1. 21

LG전자는 전자제품, 모바일 통신기기 및 가전제품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전 세계 140여 개 사업장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해 2019년 매출액 62조 3,06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홈 어플라이언스&에어 솔루션(H&A), 홈 엔터테인먼트(HE),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MC), 비이클 컴포넌트 솔루션(VS), 비즈니스 솔루션(BS)의 5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TV,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고객, 환경, 협력회사, 지역사회,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장과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중장기 관점의 3대 지향점 및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3대지향점인 ‘지능형 라이프 스타일 촉진’, ‘탄소 중립 및 순환경제실현’, ‘더 나은 사회구현’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 및 기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별 지원규모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국내 기부활동

- LG전자 생산사업장이 소재한 평택, 창원, 인천, 구미 지역 거점 병원 및 보건소에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기부했습니다.
- 대구 의사회에 의료용 방호복 3천벌을 기부했습니다.
-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온라인 교육용 스마트패드(G Pad3 8.0) 6,0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 병원내 감염 위험과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방문자 체온측정 및 간단한 문진 등이 가능한 안내로봇, 청소로봇을 서울대학교병원에 무상 렌트 하였습니다.
- LG그룹 주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50억원)에 동참하여 확진자 및 지역사회 감염 예방,

지역 취약 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2억원 규모 긴급 구호자금 지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친환경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LG소셜캠퍼스'에 선정되어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에 LG화학과 함께 총 2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1. 아시아

- 인도: 봉쇄 조치로 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LG전자 인도법인은 100만명 분량의 음식을 기부하였고, 공장 주변의 취약 계층 1,000명에게도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인도 병원과 격리시설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TV, 의료용 모니터 등 2,215대의 제품과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기부했습니다.
- 베트남: LG계열사와 2억원 상당의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지방정부에 지원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LG계열사와 6억원 상당의 진단키트 5만회분을 국가재난방지청에 기부했습니다.

2. 유럽

-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자사보유 옥외광고판에 영국 정부의 코로나 방지 캠페인 슬로건을 활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독려 및 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국공립 병원 및 고아원 등에 기부했습니다.

3. 미주 (미국)

기부활동

-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주(state)정부에 N95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 약 30만개를 지원했습니다.
- 뉴저지주 정부에 의료용 모니터 50대를 기부했습니다.
- 호스피스 병동 및 격리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가족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및 태블릿 161대를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회사가 매칭하여 10만불을 기부했습니다.
- 미국 온라인 샵 매출의 5%를 성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공익활동

- 뉴욕 타임스퀘어에 자사보유 옥외광고판을 통하여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뉴욕 시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여 캠페인 동참 및 지속 독려하였습니다.
- 미국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목적으로 수년간 진행되고 있는 LG Experience Happiness 프로그램의 무료 사용권을 저소득층 5천가구에 무상 지원했습니다.

- 무상보증기간이 4/1~6/30일 사이 종료되는 LG전자 전제품의 보증 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마스크 5000장 및 진단키트 2000개를 기부했습니다.



LG전자는 전세계에 약 140여 개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 임직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고 현지 상황에 맞춰 재택근무 실시, 생산법인의 가동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사 협의체 운영

전사 감염병 발병에 따른 위기대응기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실행하였고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 전사 대응지침 배포
2. 자사 및 자회사 임직원 상황 점검 일일공유
3. 글로벌 출장 금지/제한 지침 안내
4. 마스크 배포 및 손 소독제 비치
5. 전 사업장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여 유증상자 사업장 출입제한
6. 전 사업장에서 외부 방문객의 출입 금지 및 임직원들의 사업장 간 출장을 금지
7. 해외 귀국 임직원, 동거가족 자가격리지침 안내
8. 재택근무 기준 및 재택근무자 예방수칙 안내
9.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안내
10. 사내 복지시설(헬스장, 카페 등) 사용 금지 조치
11. 구내식당에 가림막 설치 및 분산식사를 위해 사원식당 운영시간 연장, 도시락 등 테이크아웃 메뉴 확대

글로벌 해외 사업장 지원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에서 감염자가 급속 확산되었던 시기에는 임직원이 사용할 마스크 30만장과 소독제 방호복 등을 중국법인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어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때, 중국, 폴란드, 멕시코 법인에서 한국 사업장으로 마스크 등의 비상대응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전세계로 코로나19사태가 확산된 시점부터는 중국법인, LG상사, 서브원 등을 통해 비상대응물품을 지원방안을 다각화 하여 글로벌 전 사업장이 전략적으로 상호 협조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마스크 약 81만장을 포함한 손세정제 및 소독제, 장갑 등이 해외 사업장에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호흡장애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소공급기, 산소마스크 등을 일부 해외사업장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공급망(협력사) 지원

기존 400억원 규모였던 무이자 자금지원을 올해 55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자금을 지원하는 일정도 지난해보다 4개월 앞당겨 협력사가 설비 투자, 부품 개발 등을 차질없이 이어가며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저금리 대출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력사들에게 마스크 12만장과 손세정제 등을 전달하는 등 협력사가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재택근무 운영

코로나19 관련 안전조치 차원에서 모든 임산부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으로 어린 자녀 육아 문제가 시급한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출퇴근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8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출퇴근을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플렉시블 출퇴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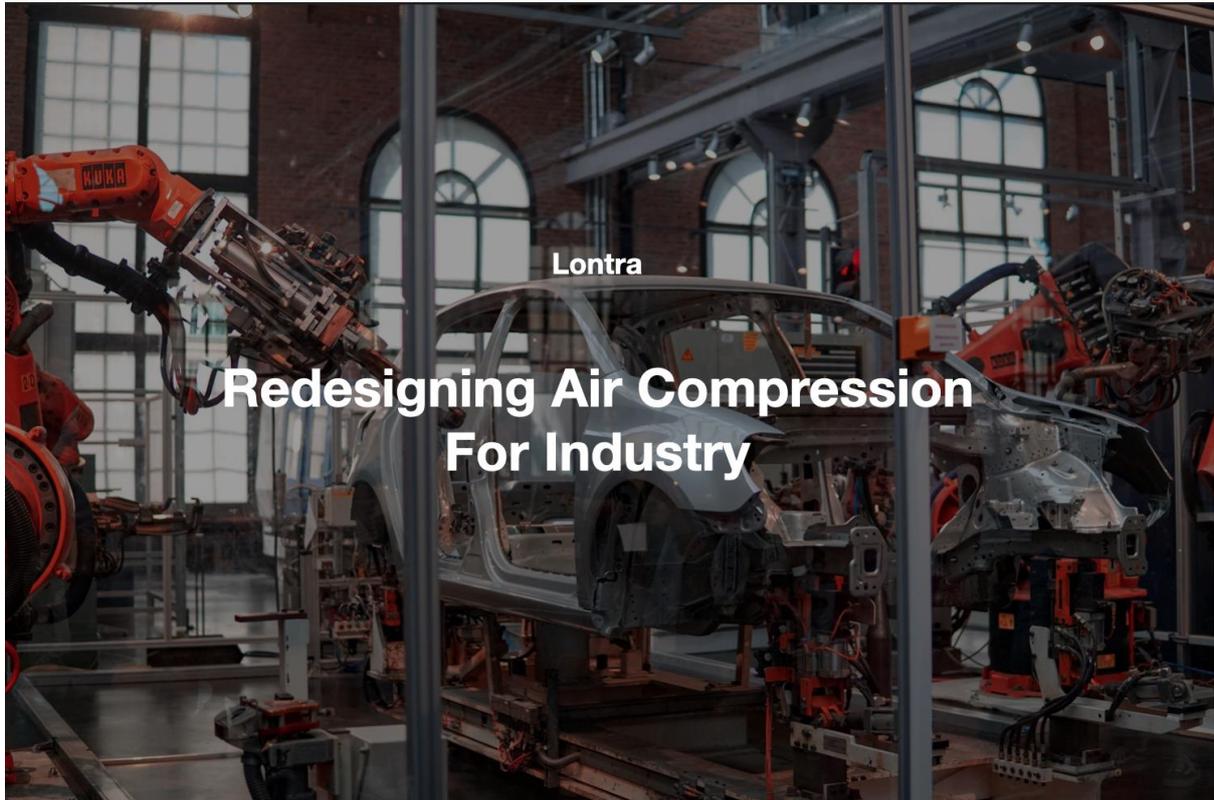
특히, 재택근무 기간 중 근태는 정상근무를 인정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해 임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클라우드에 원활히 접속되도록 관련 장비와 네트워크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주재원 가족 복귀 지원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 및 가족이 한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공항 봉쇄나 항공기 운항 상황 등을 지속 확인하며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2. [SDGs 솔루션] 산업용 공기 압축 기술을 재디자인하다



론트라(Lontra)의 블레이드 압축기는 산업 및 제조 분야의 전기 사용량 중 10분의 1을 차지하는 공기 압축 방식을 완전히 재개발했습니다.

공기 압축기는 산업 분야 속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그 적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 4의 유틸리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론트라는 자사의 새로운 공기 압축 방식을 통해 기존의 '상하' 피스톤 기술을 회전 메커니즘으로 대체해 압축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윤활유의 필요성을 제거해 보다 안정적인 압축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론트라는 영국의 수자원 관리 기업인 '세번 트렌트 워터(Severn Trent Water)'와 협업하여 이전의 압축 기술과 새로 개발된 블레이드 압축기를 비교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세번 트렌트 워터는 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300대의 공기압축기(또는 '송풍기')를 가용하는데 대략 900만 파운드 가량의 전력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비교 시험에 따르면 블레이드 압축기는 기존 압축기에 비해 매년 180만 유로를 아낄 수 있으며 산업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왜 이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공기 압축 기술은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공기 압축에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의 10%만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블레이드 압축기는 기존 압축기에 비해 20%의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산업 내 탄소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한 에너지

론틀라의 기술은 에너지 소비량을 20% 미만으로 감소시켜 산업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혁신과 인프라 구축

론틀라는 블레이드 압축기를 통해 자사의 인프라와 기술을 결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 줄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3. [SDG 미디어 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CEO 들의 생각

- 피터 레이시(Peter Lacy) Accenture 전문이사, 롭 슈터(Rob Schuter) MTN 그룹 회장 및 CEO



〈우측부터 피터 레이시(Peter Lacy) Accenture 전문이사, 롭 슈터(Rob Schuter) MTN 그룹 회장 및 CEO〉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및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 즉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롭 슈터(Rob Schuter) MTN 그룹회장 및 CEO 와 피터 레이시(Peter Lacy) Accenture 전문이사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두 사람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CEO 의 생각과 앞으로 민간부문이 지속가능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협력하여 진행했던 지속가능성에 관한 CEO 연구 설명을 부탁하는 질문에 레이시는 “우리는 1,000명 이상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120명 이상과 인터뷰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로 CEO들은 어느 정도 비판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응답자 중 21%만이 자사의 사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핵심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CEO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력, 소비자 인식, 직원 참여, 정책 틀 설정이 이미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혁신의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EO들은 투자와 기술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과에 맞게 조정할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깨끗한 에너지, 블록체인 및 투명성과 같은 방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이 나서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CEO의 71%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빠르게 이루는 데 기업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민간부문의 역할이 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가?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가? 라는 질문에 슈터는 “나는 확실히 민간부문이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창기에 기업들은 이익 일부를 자선재단에 넣는 것을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개념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3단계로 넘어가 기업의 핵심 계획 수립의 지속가능성을 적용하고 있다. 나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업 중심으로 끌어들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직원들, 특히 2000년 이후 출생한 세대들의 관심을 받고 발전할 수 있다. 요즘 투자자들은 ESG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자산운용사들은 지속가능성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기에 똑똑한 기업이라면 바뀔 때가 되었다. MTN의 경우, 우리가 판단하기엔 가장 필요한 것은 디지털 포용이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 투자 관련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CEO 중 26%만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왜 그런가?라는 질문에 레이시는 “우선 지역적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책임 있는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 지역 내에선 큰 투자기업일수록 책임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는 작년에 진행되었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자본시장이 많이 바뀐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서야 우리는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CEO는 아직 주류 투자기업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주요 투자자들이 기업 성과 및 재무와 ESG 간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다. 기술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슈터는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딥러닝은 기존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에 기반한 기술 발전이다. 즉 연결망의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도 이루어질 수 없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시장의 경우 전력 공급율이 45%밖에 되지 않는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기 보급을 늘릴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술의 현대화는 우리에게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우리 삶의 많은 요소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었다.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4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레이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은 AI와 기계를 넘어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유전체학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기술을 종합해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기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유엔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이다. 10년 동안 우리는 기술이 지속가능성을 이끌어주며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들은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더 많은 행동을 취할 것을 강조했으며 아젠다 2030까지 아직 4,000일이 남았고 CEO들 또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만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법무법인 지평 ‘인권경영팀’... 인권침해 예방... 기업 경영리스크 감소 주력”



-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해 12 월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인권 친화적 경영을 관리하는 ‘인권경영팀’을 처음으로 설립함
- ‘인권경영팀’은 기업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 자문 및 관련 교육, 인권침해 사안 관련 조사와 구제방법 자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경영리스크 감소에 주력함
- 그 예시로 SK 그룹의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관련 법률 자문을 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대상으로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인권 관련 평가를 지원함
- 인권경영은 국제적 추세인만큼 한국 기업이 국제적 수준의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신문

2. 신한은행, 은행장 선임에 의견 제시... “책임경영 강화”



- 신한은행이 6 월 25 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신한은행 이사회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자경위)에 경영승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기존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신한은행장 선임 등 은행의 경영승계 사항은 신한금융지주 자경위에서 정해왔으나, 신설 조항에 따라 신한은행 이사회는 은행장 자격 등을 따져보고 자경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됨
- 이사회는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를 위한 은행소속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개발계획과 평가·개발결과에 관한 내용을 연 1 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경영진 선임과 해임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신한금융지주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조항을 변경
-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사회는 보고 절차를 넣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규범이 개정됐다”고 설명

3. 한국중부발전, “발전량 25% 신재생에너지로”... 보령시에 태양광나무도 설치



- 한국중부발전은 2030년 까지 발전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수소 경제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선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 지난 8월에는 강원 인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 황태덕장을 활용한 지역 상생형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유휴부지 활용으로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상생을 추진한 모범 사례로 꼽힘
- ‘희망 누리사업’과 같은 복지사업을 추진해 태양광나무(솔라트리)를 설치, 태양광모듈을 활용한 미세먼지 정보와 스마트폰 무선충전을 제공함
- 중부발전은 해외 신재생 사업에서도 두각을 내고 있음. 특히 2016년 인도네시아 암푸 수력발전소(45MW)를 시작으로 2018년 7월 땅가무스 수력발전소(55.4MW)를 성공적으로 건설함
- 이 밖에도 북유럽의 스웨덴 중북부 스타브로 지역에서 풍력 발전단지(254MW)를 개발 중

CSR 뉴스

1. 공정거래는 사회적책임 첫 걸음... 대중소기업 '원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포커스: 갑질 문화로 인한 기업위험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갑질'이 기업 평판 하락, 인적자본 관리 문제와 같은 각종 리스크와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ESG 관리를 통해 인권보호, 동반성장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은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
- 특히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정거래협약'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기업 및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공정거래협약 사례로는 (1) 대한항공: 협력사 엔디티엔지니어링과 협력하여 항공기 부품 '비엘제로 코드'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부품 공급, (2) CJ 제일제당: 협력업체 교동식품의 생산 공정 개선 도움 및 자사 유통망을 활용하여 식품 판로 확대 지원 등이 있음

머니투데이

2. 포스트 코로나 ‘착한기업’에 돈 몰린다… ESG 시장 급성장



- 최근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국내 금융권의 ESG 관련 채권 발행이 증가
- ESG 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아시아까지 확대되는 추세
- 국제공인재무분석협회 (CFA Institute)가 실시한 글로벌 투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3%가 투자 전 확인하는 주요지표로 ESG 를 검토한다고 응답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ESG 현안분석’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코로나 19 로 인한 추가수익률 하락 폭이 낮다는 지표를 제시함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이 발표한 GSIR(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에 따르면, ESG 투자 규모는 유럽과 미국이 전체의 85%를 점유하고 있어 절대적이지만, 최근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ESG 투자 비중이 빠르게 상승 중
- 한국의 경우도 2018년 ESG 투자 규모가 약 28조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59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발행 기업도 공기업과 은행권 중심에서 점차 제 2 금융권 및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전자신문

3. 문대통령 22일 반부패협의회... 오픈마켓 '갑질' 대책 점검



-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상거래나 온라인배달업체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대책점검을 위해 제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함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유관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본 협의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 등 민생 침해 문제에 대한 대처 및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편법적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최근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기업과 영화·배달·부동산 중개업 등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청와대는 "이러한 과정에서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함
- 문재인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유관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함

서울경제

4. "코로나 19, 여성 임시직에 가장 큰 충격"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의 '코로나 19 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로 여성 임시고용직이 가장 큰 일자리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 월 기준 전체 취업자 39 만 3000 명 감소 중 여성 임시직만 31 만 5000 명 줄어들었으며 업종으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에서 주로 감소함
-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여성이 더 타격을 받는다는 분석에 따라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성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의 정책을 적용을 하는데 고용부 양성평등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또한 코로나 19 로 재택/스마트 근무 경험이 쌓이고 기업 문화 변화로 일, 가정 양립 근로 관행이 확산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머니투데이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곳입니다.

- 인천항만공사(재가입)

2. COP/COE 제출회원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1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인천항만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KEB 하나은행, LG 화학, 두산중공업,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LS 산전, 휴맥스, 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CJ 대한통운, KDB 산업은행,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